

로버트 A. 피터슨,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세션 12, 구원 사건, 4부, 예수 부활, 필수 결과, 1부, 예수의 승천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2, 그리스도의 9가지 구원 사건, 파트 4, 예수의 부활, 필수 결과, 파트 1, 예수의 승천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구원적 의미와 함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에 대한 연구를 계속합니다.

이미, 그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거듭났습니다. 그들은 이생에서 그의 부활에 의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성령에 의해 새로운 삶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마지막 날에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최후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영광스럽고, 썩지 아니하며, 불멸하고, 강력한 몸으로 새 땅에서 영원한 삶으로 부활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21, 고린도전서 15:42-43, 52-53. 왜 이게 사실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20-22,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재앙이 될 결과를 솔직하게 논의한 후에, 이 강의 시리즈에서 앞서 언급했듯이, 그것은 삼위일체 교리와 함께 주님께서 저를 자신에게로 인도하기 위해 사용하신 것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신 솔직함과 정직함에 너무나 겸손하고 놀랐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기초가 무너질 것이고, 그것이 저를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이끌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20에서 사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외칩니다.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라고 부릅니다(20절).

첫 열매는 양 떼나 들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의 제물이었고, 예배자 측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보여주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양 떼를 축복하셨거나 우리의 작물을 축복하셨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주님의 편에서, 첫 열매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그의 율법은 첫 열매 후에 그의 백성을 돌보시겠다는 그의 약속이었습니다 . 그러므로 예수님이 첫 열매 라는 사실은 앞으로 더 많은 것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믿는 자들이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되는 원인입니다. 고린도전서 15:21 , 22. 죽음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아담의 새 창조 그림이며, 그것은 확실히 우리의 미래 부활의 기초로서 무덤에서의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5:47~49.

사도는 다시 두 아담을 대조합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과 두 번째이자 마지막 아담 예수. 고린도전서 15:47-49.

인용문, 첫 번째 사람은 땅에서 나왔고, 흙으로 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왔습니다. 흙으로 된 사람이었듯이, 흙으로 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그러하듯이 하늘에 속한 자도 그러하니 우리가 흙으로 된 사람의 형상을 지녔던 것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의 형상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첫 사람을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아담이라 이름하셨느니라. 창세기 2:7에 나오는 땅이라는 단어는 아다마(adamah) 이다 .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되셨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고린도전서 15:47). 바울은 두 아담과 관련된 사람들이 그들과 비슷하다고 가르친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인간은 흠에 속합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 속에서 우리 아버지 아담을 따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은 천국에 속합니다.

48절, 하늘로부터는 하나님과 새 창조의 현실에 근거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요점은 우리가 하늘 사람의 형상을 지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이자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부활할 것이 보장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된 삶은 우리를 타락의 영향으로부터 구해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시작합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지금 재생과 영생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에 믿는 자들이 영생으로 부활하게 합니다.

또한, 그것은 우주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두 번째 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1. 성경의 첫 번째 구절에서 요한계시록 21:1로 넘어가려면 타락이 개입하고, 로마서 8장에 따르면 속박과 부패에 복종했던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창조물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19과 20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의 화해자가 될 자격을 부여합니다. 즉, 바울은 서론에서 앞서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그리스도론이 속죄 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그에게 거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골로새서 1:19).

골로새서 2:9은 이 본문에 대한 영감 어린 주석을 제공합니다. 인용하자면,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신으로 거합니다. 즉,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몸을 가리킬 때, 당신은 하나님의 몸을 가리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합니다.

육체적 형태로, 육체적 방식으로. 즉, 그는 육신을 입은 신입니다. 그는 신인입니다.

그 인용문 때문에, 하느님은 그를 통해 모든 것을 자신에게 화해시키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사건과 그림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사건의 중요성을 해석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십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화해의 그림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바울이 모든 것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자신에게 화해시키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즉각적인 맥락에서 이 표현은 네 번 나옵니다.

이는 만물이 하늘과 땅에 창조되었음이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곧 왕위나 주권이나 통치자나 권세나 모든 것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이니라. 만물이 그를 통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붙들고 있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 매번 의미는 같다. 모든 것은 모든 창조된 현실을 가리킨다. 성육신 이전의 아들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

16절, 두 번. 그는 영원합니다. 그는 모든 것보다 먼저 존재했습니다.

17절에서 그는 신성한 섭리의 일을 수행합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함께 유지됩니다. 따라서 17절에서 20절에서 그가 모든 것을 화해시켰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의미가 같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된 현실을 화해시켰습니다. 이 결론은 바로 다음 단어에서 확인됩니다. 인용문, 하나님은 그를 통해 땅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자신에게 화해시키기를 기뻐하셨습니다.

20절. 이 말씀은 16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듯이,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화해시키십니다. 이 맥락에서,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으로 화해시키신 모든 것에는 천사, 구원받은 인간, 그리고 하늘과 땅이 포함됩니다. 물론 몇 가지 문제가 다가올 것입니다.

천사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16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즉 왕좌든 주권이든 통치자든 권세든"이라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인용문 닫기. 이러한 표현으로 사도는 천사를 지칭합니다.

고린도전서 15:24, 에베소서 1:21, 에베소서 6:12, 골로새서 2:15를 비교해 보세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화해시키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구원이 필요 없으며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이유로 학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화해시키신 것을, 그분의 평화로운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을 물리치고 복종시키신 것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 본문은 골로새서 2:15입니다. 바울은 이전 구절에서 십자가에 대해 말한 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장 해제하고 자신 안에서 승리함으로써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했다고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 안에서 승리함으로써 그들을 무장 해제하고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드문 모호한 그리스어 단순 대명사라고 이전에 언급했었습니다. 아니면 him 또는 it 중 하나입니다. he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나, it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어느 쪽인지, 어느 쪽인지, 다른 쪽은 암시됩니다.

인간도 화해합니다. 골로새서 1:20 바로 뒤에 나오는 두 구절이 증명하듯이요. 여러분도 본래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마음으로 적대적이었으며 악행을 행하였지만, 이제는 그의 육체로 죽으심으로 화해하사 거룩하고 꾸지람할 것이 없고 흠 없고 꾸지람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시려고 하셨습니다. 골로새의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화해시키신 사람들의 표본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모든 것을 자기에게 화해시키셨다고 썼을 때, 그는 믿는 자들이 구원받고, 악마들이 정복당하고, 하늘과 땅이 저주에서 구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Doug Mu의 요약은 더 개선할 수 없습니다. Doug Mu의 해설은 그가 쓴 책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로마서, 와, 그는 그걸 하는 데 10년을 보냈어. 골로새서와 갈라디아서, 그가 하는 일은 매우 견고해. 제임스, 그것들은 다 좋아.

새서 1:20이 우주적 구원이나 우주적 구속이 아니라 우주적 회복이나 갱신을 가르친다고 썼습니다.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모든 반역적인 창조물을 그의 주권적 권능의 통치 아래로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죄로 더럽혀진 전체 우주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로마서 8:19-22).

타락한 인간이 화해의 주요 대상이라는 사실은 신약 전반과 이 본문의 후속편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과 20~23절, 하지만 이 화해 사역을 인간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은 심각한 실수이며, 항상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골로새서 기둥 주석을 인용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놀라운 업적, 모든 것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언급합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 예수의 부활을 제외하려고 합니까? 아니요, 화해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자격에 대해 말하기 직전에, 그는 시작이며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18절).

그는 우리가 이 강의에서 앞서 설명했듯이 그리스도가 시작이며,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태어난 자로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근원이며, 부활한 자로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평화를 이루는 자라고 결론 내립니다. 제가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관련된 모든 것을 화해시키신 것이 보편주의, 즉 절대적으로 모든 마지막 인간의 구원을 수반합니까? 저는 네 가지 이유에서 아니라고 답합니다. 첫째는 골로새서 1장의 더 가까운 문맥입니다. 골로새서 1:19과 20 전후에서 바울은 구원이 도덕적 영역의 변화를 수반한다고 지적합니다. 만약 골로새인들이 이 변화를 겪지 않았다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1:13과 21. 두 번째는 서신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저의 일요 학교 수업에 참석한 사람들은 제가 동심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것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구절 바로 주변의 구절, 그리고 그 다음 장, 그 다음 책, 그리고 그 다음 신약 전체, 그리고 그 다음 성경 전체입니다. 이 시점에서 관련이 있다면 말입니다.

3:6에서 전체 서신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반항하는 인간에게 임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콜로새서 1:19과 20의 모든 것을 마치 바울이 같은 서신에서 스스로 모순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서신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2장에서 그는 잃어버린 자들이 분노와 격노와 환난과 곤경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2:8과 9.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인용하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8~9. 네 번째로, 문맥의 동심원을 확장한다면, 그것은 신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6장에서 영원한 형벌에 대해 경고하셨고, 성경 이야기의 끝에는 하나님의 도시 밖에 있는 인간, 요한계시록 22장, 불못에 있는 인간, 하나님의 기쁨에서 영원히 분리된 두 번째 죽음을 겪는 인간이 포함됩니다, 요한계시록 21:8, 22:15.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요한계시록 23장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좋아함과 싫어함이나 선입견에 맞게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아니요, 솔라 스크립투라는 우리가 일관되고 의도적으로 우리의 이성, 경험, 전통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3:14는 아마도 놀라운 구절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새 하늘과 땅을 시작하시는 또 다른 올바르게 이해된 구절입니다.

여기서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라고 언급합니다. 대부분의 해석가들은 이것을 그리스도가 창조에서 아버지의 대리인이라는 가르침으로 이해하지만, 저는 예수가 여기서 원래의 창조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언급한다고 확신합니다. 앞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첫째, 이사야 65장 16절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의 아멘이라는 단어의 출처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아멘을 이름으로 이해하는 구절은 두 구절뿐입니다.

이사야 65:16의 구절 바로 다음 구절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일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 그러므로 계시록 3:14의 구약 전조인 이사야 65:16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구약의 첫 번째 언급에 뒤따르기 때문에 계시록 3:14가 같은 개념을 말하고 있다는 결론을 뒷받침합니다. 둘째, 계시록 3:14의 다음 단어인 충실하고 참된 증인은 독자들을 계시록 1:5로 돌아가게 하는데, 여기서는 충실한 증인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증인은 5번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 3번은 순교자와 예수의 인간 증인을 가리킵니다. 증인이 예수를 가리키는 유일한 두 곳은 1:5와 3:14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독자들에게 1:5에 비추어 3:14를 해석하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요한계시록 3:14는 1:5에서 그리스도의 칭호를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것은 창조가 아니라 죽음과 부활을 전파하는 예수를 다룹니다. 요한계시록 3:14는 또한 창조가 아니라 구속을 다룹니다. 셋째, 요한계시록 1:5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태어난 자라는 표현은 우리를 골로새서 1:18로 되돌립니다.

그는 시작이며,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태어난 자이며, 콜로새서에서 바로 앞에 나오는 말은 창조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즉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일부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 계시록 3:14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으로 묘사한 것을 해석해야 하며, 1:5에서 부활하신 그의 언급,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태어난 자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그의 부활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으로 여겨진다. 즉, 죽고 부활한 그 혼자만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라는 뜻이다. 예수는 죽은 후에 살아 있는 자이며, 살아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시작한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미 새 시대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지금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거듭남으로 영생을 주십니다. 그는 다시 오실 때 그들을 죽음에서 영생과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의 장엄한 열매 중 하나는 선지자와 사도들이 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사야 65:17, 66:22, 베드로후서 3:13.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두 가지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의 성육신과 죄 없는 삶. 그의 구원 사역의 심장과 영혼, 그의 구원 사역의 본질적인 핵심은 그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의 구원 사역의 다섯 가지 본질적인 결과 중 첫 번째로 넘어가는데, 그것은 또한 그의 죽음과 부활의 결과인 구원 사역이며, 그것은 그의 승천입니다.

The Ascension of Our Lord 에서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 말한다 . 천국은 우주가 유지되고 지배되는 장소이자 구체이다. 천국은 구원이 공간과 시간의 세계로 나아가는 장소이자 구체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보편적이고 영원하기 위해, 성육신한 아들, 메시아 예수는 하늘로 돌아가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하늘에서 성령의 대행을 통해 성육신한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팔레스타인의 제한된 지역에서 시작된 신성한 일을 계속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승천의 구원적 의미를 결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의 현재 소망을 확실한 기초 위에 세우기 위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6:19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상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믿는 자의 소망은 가장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고 이전에 인간과 하나님을 분리했던 휘장 뒤에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언젠가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신 곳에 도달할 것이라는 소망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구자이시며, 그분의 승천은 우리도 하나님의 천상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천상의 집에서 그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요한복음 14 :1-3). 히브리서 6장은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경고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뒤에 히브리서 6:19과 20이 결론인 강력한 보존 구절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영혼의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닻으로 여기며,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대신하여 선구자로 가신 휘장 뒤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의 구원적 의미를 요약하자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제를 거의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첫째, 승천은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승천을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할까요? 승천에 대한 기록에서 주된 행위자는 하나님 아버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누가는 승천에 대한 기록에서 그리스도가 옮겨져 들어올려졌다고 말합니다.

이 두 동사는 모두 신성한 수동태로 알려진 방식으로 기능하는데, 이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표현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지만, 맥락과 행동 유형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그의 아들을 하늘로 다시 들어올리신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승천의 주요 행위자라는 생각은 사도행전 5:30과 31과 디모데전서 3:16에서도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종종 그렇듯이,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승천을 자신의 사역의 다음 단계로 말씀하십니다. 인용문,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요한복음 20:17. 또한 바울과 히브리서 저자는 승천을 그리스도의 행위로 묘사합니다.

그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고, 에베소서 4:8에서 바울은 말하고, 위대한 대제사장이 하늘을 통과하셨다고 히브리서 4:14에서 말합니다. 이 모든 경우에, 그리스도 자신이 승천의 사건에서 활동하는 분입니다. 이 두 가지 강조점을 감안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승천을 삼위일체의 협력적 사역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들어올려 하늘 위로 높이십니다. 그리스도 자신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승천하시고 하늘을 통과하십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때 성령이 능력을 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 탁월한 영의 사람이라는 사실로 보증됩니다.

이 삼위일체적 관점을 허용한다면, 승천은 의미 있게 그리스도의 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행동과 암시된 행동을 잊어서는 안 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성령을 구별하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승천 역시 예수의 구원 사역의 일부입니다. 승천은 그리스도의 다른 구원 사역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승천의 근본적인 의미는 다른 구원 사건과 관련된 기능입니다.

승천은 그리스도의 이전 사역의 진실성을 확증하며, 이후의 사역을 위한 서곡이자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가 주장한 그 사람임을 확증합니다. 그는 참으로 죄인을 구원하고 창조물을 회복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이에 대한 증거는 그가 죽음에서 부활한 후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 통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만일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승천은 또한 그리스도의 후속 구원 사역의 전제 조건입니다. 세션, 오순절, 중보, 재림. 시편 110편 1절과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6절까지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시기 위해 승천하셔야 했고, 그렇게 하여 하늘에서의 세션이나 앉으심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심으로 모든 것이 온전히 그에게 복종될 때까지 모든 창조물의 왕으로서 자리를 차지하실 수 있었습니다. 승천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시는 데도 필요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6:7에서 이 주장을 명확히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자 그는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으셨고, 위대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그의 교회에 축복으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경은 종종 견해를 함께 결합합니다.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 후의 세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것. 그리스도의 중보도 그에게 승천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처음에 떠나셨을 때에만 다시 오실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은 그가 하늘에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영원히 제사장으로 자리를 차지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즉, 그는 땅에서 하늘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의 재림도 그의 승천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처음에 땅을 떠나서 그가 시작한 곳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다시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하늘이 모든 것을 회복할 때까지 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행 3:21).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의 신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거기에 도착하신 후 교회를 다스리고 능력을 주어 하나님의 왕국이 퍼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구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늘에서 예수로부터 받는 모든 혜택은 그가 먼저 승천하여 그곳에 자리를 잡지 않는 한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천과 그리스도의 완벽한 희생. 승천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을 완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더 큰 신권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고 그가 지상에서 이룬 희생을 하늘에서 바칠 수 있게 합니다. 예수께서는 지상 영역을 넘어 승천하심으로써 자신의 희생을 하늘 성소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지상의 성전, 성막, 성전은 단지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구약의 희생은 제물이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까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이 십자가에서 바쳐진 그리스도의 완벽한 희생에도 사실일 것이라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휘장 뒤로 지나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들어가 하늘 성소에서 십자가에서 이룬 것을 바치셨을 때 승천을 통해 이것을 성취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희생의 완성과 완성된 희생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면전에서 지상에 바치신 그의 제사장적 사역의 완성을 구별하며, 그것은 그의 승천을 요구합니다.

예수 승천의 구원적 의미에 대한 매우 유익한 이해는 승천과 신적 화해입니다. 승천은 인간과 신의 화해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후, 아담과 이브는 반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직접적인 면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첫 약속을 주셨을 때 그들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에덴에서 그들이 그분과 함께 누렸던 가장 달콤한 교제는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교류하셨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불의한 백성과 분리시킨 죄 때문에 가장 가까운 관계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성육신, 삶, 죽음, 부활을 통해 죄의 권세를 파괴하셨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막는 불의에서 사람들을 깨끗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너무나 효과적이어서 그 희생에 속했으며, 죄는, 잠깐만요, 율법 아래서 지은 죄에 속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예수의 희생은 실제로 성취되기 전에 효과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백성에게 미래지향적으로 적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믿었던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과거지향적으로 적용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에서 누렸던 교제는 결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그런 다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육신하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완전한 인간성을 가지고 가셨습니다(행 1:11). 그곳에 도착한 후,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선구자가 되셨습니다(히 6:19, 20).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에 따른 구원 사건을 통해 그는 인간과 신성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재확립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분리하는 모든 것을 폐지했습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큰 희망과 확신의 원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종류, 우리 인류 중 한 사람이 하나님 의 오른편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리고 그의 아들과 영을 통해 역사 속에서 그의 계획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종류의 친밀함은 에덴 시대 이후로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완전한 인간, 신인으로서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새 땅에서 부활한 성도로서만 이 교제를 온전히 누릴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인용하자면,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요한일서 2:1, 2. 우리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인간의 완전한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충실하고 죄 없는 삶을 사셨으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무덤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오른편에 있는 합당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의 창조물을 다스리기 위해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는 지상에서 천상의 사역으로 옮겨갔고, 현재 그는 자신의 백성의 이익을 위해 그 사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승천의 영광에 대해 논의했으므로, 다음 강의에서 그의 천상 세션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2, 그리스도의 9가지 구원 사건, 4부, 예수의 부활, 필수적인 결과, 1부, 예수의 승천입니다.